

취업난 2면

육군대위·럭비코치도 "환경미화원 되고싶어"

북구청 공채 11대 1

10명을 뽑는 광주시 북구청의 환경미화원(상용직) 공개 채용에 육군 대위 전역자를 포함, 110명의 지원자가 몰려 극심한 취업난을 실감케 했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10명 모집에 110명(남자 102명, 여자 8명)이 접수해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들의 화력도 대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이 46.4%인 5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0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32명(29.1%) ▲20대가 25명(22.7%) 등의 순이었다.

응시원서 접수자들 중에는 육군 대위 전역자를 포함한 전직 교

정직 공무원, 현역 럭비 코치, 유아보육사, 건설기계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환경미화원 직종이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신분이 보장(정년 59세)되며 안정적인 인데다 임금도 초임 연봉이 3천만원 수준이고 종전 '청소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회봉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는 오는 20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4일 북구 문흥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응시자 110명을 대상으로 모래주머니 메고 100m 달리기 등 체력검정을 실시, 34명을 선발했다.

북구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7급 2명 모집에 331명 몰려

광주시 165.5대 1

광주시가 19일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정해 시 홈페이지(www.kwangju.go.kr)를 통해 발표했다.

시가 지난달 실시한 필기시험에는 행정 7급 학예연구직, 농촌지도직 등 3개 직렬 5명 모집에 388명이 응시해 평균 7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행정 7급은 2명 모집에 331명이 응시해, 이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 165.5대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2.1대1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자치단체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kali.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구비서류를 21~22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오는 26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28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인간띠'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열린 '광주북부순환도로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침탄산단~한새봉~장동동(7.5km) 구간에 개설되는 이 도로가 도시 숲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열린 '광주북부순환도로 백지화'를 위한 '인간띠 잇기 대회'에 참가한 500여 명이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침탄산단~한새봉~장동동(7.5km) 구간에 개설되는 이 도로가 도시 숲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위정각기자 jwi@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 범죄현장 '허둥지둥'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현장검거율 최하위

광주 19%·전남 14% ... 대전·경남 4분의 1 수준

살인과 강도 등 5대 강력 범죄에 대한 광주·전남 경찰의 현장검거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경찰은 지난해 112신고에 따른 현장검거율이 대전과 경남 등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쳐 초동수사 부실에 따른 '치안 공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경찰청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 5대 범죄에 대한 현장검거율이 14.4%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36.5%)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112에 신고된 강력 범죄 10건 가운데 현장에서 검거된 사례가 2건에도 채 못미쳤다. 전남청은 지난

해 112에 신고된 강력 범죄 1만4천 339건 중 2천64건만 현장검거가 이뤄졌다.

또 이같은 현장검거율은 대전청(61.9%)과 경남청(60.8%) 등에 비해 4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도 지난해 5대 범죄에 대한 현장검거율이 19.0%에 그쳐 강력사건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은

총 112신고건수 2만4천159건 중 현장검거가 이뤄진 경우는 4천583건에 그쳤다.

광주경찰은 또 지난 4월 남구 구동에서 발생한 3인조 금은방 강도 사건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용의 차량과 대치하며 실탄까지 발사했으나 용의자들을 놓쳐 현장 대응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원유철 의원은 "현장검거율은 강력사건에 대한 해당 경찰의 초동수사 및 현장대응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라며 "초동수사 미흡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청의 실정에 맞는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신대학교 (Gwangshin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student and text about education and campus life.

오늘 날씨

또 가을 황사. 비가 그친뒤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으며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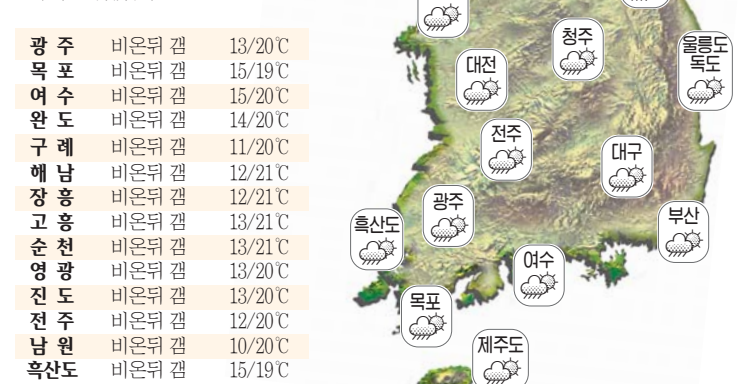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wind direction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October 19th to 25th, including high/low temperatures and precipitation.

광주지하철 고객 만족도 1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09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전국 지하철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했다. 공사는 지난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09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KCSD)' 1위를 비롯,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국토해양부 경영·서비스 평가에서도 전국 지하철 최고점을 차지한 바 있어 올해 각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휩쓸었다.

18일 한국표준협회 발표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인천지하

철 등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하철 부문 최고 점수인 74.2점을 맞아 1위를 차지했다. 공사는 이번 성과에 대해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테마관 운영, 사회공헌 활동, 편의시설 확충, 연간 운행사고율 제로의 최첨단 안전관리 등 '시민공감형 고객만족 경영'을 펼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오행원 사장은 "문화·환경 지하철 활성화 등 더 좋은 고객만족 지하철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Best' (대한민국 최고) products, featuring various items like food, clothing, and services with their prices and benefits.

Advertisement for '태양광발전소' (Solar Power Plant) by Sun Energy, highlighting energy savings and environmental benefits.

Advertisement for '이태리가구' (Itaeri Furniture) by Sun Energy, showcasing various furniture pieces and home appliances.